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5, pp. 107-115, 2017 https://doi.org/10.15207/JKCS.2017.8.5.107

간호대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박주영[1], 우정희[2], 김두리[3*]
[1,2,3]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Creativity in Nursing Students

Ju-young Park[1], Chung Hee Woo[2], Doo Ree Kim[3*]
[1,2,3]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 약 임상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간호사들은 다양한 핵심역량 중에서도 창의성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추후 전문직 간호사로써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간호대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분석 연구로,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D시의 일개 간호대학 20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창의성과 자기효능감(r=.374, p<.001), 사고력(r=347, p<.001), 학교환경 인식(r=.246, p<.001)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β=0.249, p=.001), 사고력(β=0.152, p=.043), 학교환경인식(β=0.188, p=.0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창의력에 대한 설명력은 21.2%로 나타났다. 추후,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방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 : 창의성, 사고력, 학교환경 인식, 자기효능감, 간호대학생,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creativ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should act as professional nurses in the future. In order to carry out this research, the data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or 209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were approved by the IRB of K Univer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creativity and self-efficacy(r=.374, p<.001), thinking ability(r=.347, p<.001), and school environment perception(r=.246, p<.001) were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In additi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reativity of nursing students were self-efficacy(β=0.249, p=.001), thinking ability(β=0.152, p=.043), school environment perception(β=0.188, p=.005)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21.2%.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methods for creativity develop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 Key Words : Creativity, Thinking Ability, School Environment Perception, Self-efficacy, Nursing Student, Convergence

1. 서론

창의성은 고차원적이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개발을 위한 핵심역량으로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창의성을 길러

*Corresponding Author : 김두리(kdr2015@konyang.ac.kr)
Received March 21, 2017 Revised April 11, 2017
Accepted May 20, 2017 Published May 28, 2017

줄 수 있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육성해야할 핵심역량으로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교육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1,2].

창의성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3,4]. 따라서 창의성은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적인 노력이며, 이는 스스로 자신의 잠재능력 또한 발견하게 한다[5]. 창의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간호학분야에서 필수적인 역량이다. 왜냐하면 병원 임상현장은 예측하지 못한 응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은 응급상황에서 간호사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사는 환자상태에 따른 개별적인 간호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환자를 사정하고, 계획하며, 수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호사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능력은 환자에게 유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4,6]. 따라서 추후 간호사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창의성 함양은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매우 다양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사의 임상실무 수행을 위한 핵심역량으로 '전인간호를 위한 교양/전공지식', '간호술의 통합적용 능력', '대상자 건강향상을 위한 전문분야간의 의사소통/협동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법적/윤리적 책임', '리더십능력', '연구수행능력', '글로벌 보건의료 정책변화 대응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7]. 뿐만 아니라 과학이자 예술이라는 간호지식과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간호대학생의 창의성은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8].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창의성 증진은 추후 전문직간호사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창의력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창의력은 환경적 처치에 의해 증진 될 수 있고[10],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대인관계만족도,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현재까지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과 관련된 연구는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로 리더십, 비판적 사고능력,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11,12,13,14]와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10,15].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간호대학생을 위한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창의성 증진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자기효능감, 사고력, 학교환경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자기효능감, 사고력, 학교환경 인식정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본 수 산정을 위해 G-Power ver. 3.1.9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설정하여 적용한 결과 160명이었다. 이에 약 30% 탈락률을 고려하여 2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을 제외하여 최종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9명이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자가기입형 설문지로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문항, 학교환경 인식수준 10문항, 자기효능감 19문항, 사고력 10문항, 창의성 17문항을 포함하여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창의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창의성도구는 2001년 Runco, Plucker와 Rim이 개발하고, 이순묵과 이효희[16]가 번안한 RIBS(Runco's Ideational Behavior Scales)로 아이디어의 사용과 평가, 생성 기술과 같은 발상과 관련된 창의적 행동을 점검한다. 총 17문항으로 응답내용은 Likert식의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도구는 Sherer, Maddux[17]가 개발한 척도를 김아영과 차정은[18]이 타당화한 다음, 김아영[19]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9문항이며, 하부영역으로 자신감, 자기조절, 계획성으로 분류된다. 응답 내용은 Likert식의 6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6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2.3.3 사고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고력도구는 이경화, 김은경, 고진화, 박춘성[20]이 개발한 대학생용 학습역량검사(LCT-CMB)중, 사고력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하부영역으로는 분석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메타인지능력으로 구분된다. 응답내용은 Likert식의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고력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도구는 개발당시 신뢰도가 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다.

2.3.4 학교 환경인식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환경도구는 김혜숙[21]이 개발하고 수정한 학교환경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창의적 풍토 및 문화와 지원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이다. 응답내용은 Likert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69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는 K대학병원의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KIRB:2016-04-008).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D시에 소재하는 일개간호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11일에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윤리적 보호내용을 설명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 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만이 서면 연구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설명문에 연구참여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언제라도 철회가능하다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또한 설문지 수거는 연구자가 과대표를 통해 받아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2.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창의성, 자기효능감, 사고력, 학교환경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의성 분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와 사후분석을(Scheffe)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창의성, 자기효능감, 사고력, 학교환경 인식정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창의성에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2세 미만이 174명(83.3%)로 많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9

Variables	Categories	n(%)	M±SD	t/F(p)
Age	22>	174(83.3)	59.83±10.19	1.10(.274)
	22≤	35(16.7)	57.74±10.67	
Gender	Female	181(86.6)	59.78±10.06	-1.06(.292)
	Male	28(13.4)	57.57±11.60	
Grade	1	65(31.1)	57.38±11.68	1.46(.227)
	2	47(22.5)	60.59±9.26	
	3	47(22.5)	59.67±10.14	
	4	50(23.9)	61.00±9.14	
Type of highschool	Liberal arts	121(57.9)	59.47±10.43	-.01(.990)
	Natural science	88(42.1)	59.49±10.13	
Selective motivation of Nursing major	Parent's recommendation	50(23.9)	57.54±9.21	.99(.415)
	For employment	91(43.5)	59.38±11.22	
	For serve	22(10.5)	59.82±12.99	
	According to one's grade	9(4.3)	60.67±4.12	
	Etc	37(17.7)	61.92±8.11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a]	52(24.9)	62.17±9.53	4.55(.004)*
	Good[b]	99(47.4)	60.17±10.88	
	Moderate[c]	52(24.9)	56.38±8.63	
	Not good[d]	6(2.9)	50.00±10.77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Very satisfactory	51(24.4)	60.16±10.39	.66(.620)
	Satisfactory	84(40.2)	58.72±10.06	
	Moderate	65(31.1)	60.42±10.72	
	nsatisfactory	7(3.3)	54.50±6.38	
	Very unsatisfactory	2(1.0)	58.00±15.56	
Confidence of Nursing major	Very confident	20(9.6)	62.55±10.68	2.26(.064)
	confident	65(31.1)	61.05±9.81	
	Moderate	71(34.0)	59.03±9.03	
	Not confident	46(22.0)	57.78±12.33	
	Very not confident	7(3.3)	51.57±5.59	

* Scheffe

았으며, 성별은 여자 181명(86.6%)가 대부분이었다. 1학년이 65명(31.1%)으로 가장 많았으며 2, 3학년 각각 47명(22.5%), 4학년 50명(23.9%) 순이었다. 고등학교 때 문과였던 대상자가 121명(57.9%), 이과였던 대상자가 88명(42.1%)이였다.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취업을 위해서'가 91명(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권유'가 50명(23.9%)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인관계는 '매우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각각 52명(24.9%)으로 나타났으며,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99명(47.4%)으로 나타났다. 학과 만족도는 '매우만족'이 51명(24.4%), '만족'이 84명(40.2%)으로 나타났다. 학업에 대한 자신감은 '보통'이 71명(34%)으로 가장 많았다.

3.2 대상자의 창의성, 자기효능감, 사고력, 학교환경 인식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창의성 정도는 5점 만점에 3.50(SD=0.60)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6점 만점에 3.95(SD=.049)였다. 사고력과 학교환경 인식은 5점 만점에 각각 3.67(SD=0.53), 3.24(SD=0.48)으로 나타났다 <Table 2>.

3.3 대상자의 창의성, 자기효능감 및 사고력, 학교환경 인식정도와의 관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창의성, 자기효능감, 사고력, 학교환경 인식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창의성과 자기효능감(r=.37, p<.001), 사고력(r=35, p<.001), 학교환경 인식정도는(r=.25, p<.001)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창의력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의력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성별, 학년, 고등학교 유형, 간호학과 선택동기, 학과만족도, 학업에 대한 자

신감과에서는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4.55, p=.004), 사후분석 결과 대인관계를 매우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창의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 사고력, 학교환경 인식 정도를 설명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하나인 대인관계 변수는 명목척도이므로 회귀분석을 위해 가변수로 처리하여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창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위한 예측 회귀모형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9.833, p<.001), 영향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β=0.249, p=.001), 사고력(β=0.152, p=.043), 학교환경인식(β=0.188, p=.0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변수들의 창의력에 대한 설명력은 21.2%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2> Creativity, self-efficacy, thinking ability, and level of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in nursing students N=209

Variables	M±SD	Range
Creativity	3.50±0.60	1-5
Self-efficacy Confidence Self-regulation Planning ability	3.95±.049 3.32±0.94 4.33±0.68 4.33±0.92	1-6
Thinking ability Analytical skills Critical thinking Metacognitive ability	3.67±0.53 3.68±0.58 3.54±0.71 3.79±0.61	1-5
School environment perception	3.24±0.48	1-5

<Table 3> Correlation among creativity, self-efficacy, thinking ability, level of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N=209

	CV	SE	TA	SEP
CV	1			
SE	.37 (p<.001)	1		
TA	.35 (p<.001)	.48 (p<.001)	1	
SEP:	.25 (p<.001)	.19 (p=.006)	.25 (p<.001)	1

* CV:Creativity, SE:Self-efficacy, TA:Thinking ability, SEP:School environment perception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reativity in nursing students N=209

	B	SE	β	t	p
Constant	12.43	7.39		1.68	.094
Relationship_VG	4.19	4.79	.180	.875	.382
Relationship_G	4.17	4.67	.206	.893	.373
Relationship_M	.416	4.76	.018	.087	.931
Self-efficacy	.267	.079	.249	3.37	.001
Thinking ability	.293	.144	.152	2.03	.043
School environment perception	.417	.146	.188	2.85	.005
R^2=.236, Adjusted R^2=.212, F=9.833, p=.000					

* VG: very good, G: good, M: moderate

4. 논의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현재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자기효능감, 사고력, 학교환경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논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최종결과인 간호대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추후 간호대학생의 창의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정도는 5점 만점에 3.50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옥현 외[10]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을 조사하였을 때 3.51점이었던 결과와 박현숙과 한지영[4]의 연구에서 3.62점으로 나왔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 정도를 알아본 연구에서 창의성 정도는 5점 만점에 3.97점이었으며, 1,2학년보다는 3학년 학생들의 창의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 이는 본 연구에서도 창의성 정도가 학년 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대학교육방법이 강의식 수업에서 Active learning으로 변해감에 따라 이론식 수업보다는 조별 토론 및 문제해결과정 활동을 통해 직접 경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교육방법에 많이 노출된 4학년 학생의 창의성이 다른 학년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사항에 따른 창의성 정도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대인관계 정도에 따라 창의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대상자는 대인관계가 보통인 대상자 보다 창의성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 창의성과 대인관계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확실히 논의 할 수는 없으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는 전공의 만족도, 전공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며, 학문의 집중력 또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24] 좋은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능력 또한 향상시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창의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창의성과 자기효능감, 사고력, 학교환경 인식정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경화, 김은경, 유경훈[24]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던 결과와 같으며, 강소영, 김현주[25]의 연구에서 창의성과 문제해결과정이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창의성을 함양한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해결하고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도달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인 잠재능력들을 개발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은 스스로 문제해결과정에서 사고력, 내적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할 수 있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창의성과 학교환경 인식정도가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난 것은 Tannenbaum[26]의 연구에서 창의성을 위한 환경의 영향에 대한 중요성과 환경적 변수에 대한 창의성 증진 효과로 인해 설명될 수 있다. 학교환경은 학생들의 행동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도전략 및 자료제공이 학생들의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해결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환경은 창의적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27].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사고력, 학교환경인식정도로 나타났다.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첫 번째인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에서 자신감, 자기조절, 계획성의 하부영역으로 구분되며,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자기조절(4.33점), 계획성(4.33점), 자신감(3.32점)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잡는다.',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한다.',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등의 문항이 각각 5점 만점에서 4.36점~4.4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강소영[28]의 연구에서 창의성을 호기심, 집요성, 모험심, 개방성으로 분류하였을 때 집요성과 개방성에 자기조절 효능감이 매우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 노력하고 인내하며, 동기유발을 촉진하는 자기 반응적 전략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은 창의성 경향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끈기있게 물고 늘어지는 집요성과 새로운 것에 대한 편견 없이 열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성[29]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사고력이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사고력을 측정한 결과 '나는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이해정도를 파악한다.',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느 수준, 어떤 영역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빠르게 점검한다.' 문항이 3.73~3.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미자[30]가 제시한 창의성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분류한 것 중 다양한 각도로 현상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창의성 영역 중 융통성과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다듬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정교성이 본 연구대상자에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하기는 어려우나 정은이[31]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문제해결 토의 활동이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켰다는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할 수 있다. 사고력이 간호대학생의 창의력 증진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창의성 사고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준비 단계가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 이를 확인하며 유용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기반이 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32].

세 번째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학교환경 인식정도가 나타났다. 이는 유경훈과 강순미[33]의 연구에서 창의적 학교환경은 창의적 사고력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학교환경인식 정도는 '교수님들은 강의시간 뿐 아니라 과제물에도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것을 선호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시도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가 각각 5점 만점에 3.54점, 3.70점으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가 소속한 대학에서 각 과목마다 수업의 30%이상이 다양한 Active learning으로 구성되어 타인 주도적 학습이 아닌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수업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최근 임상실습이 관찰위주로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임상환자 사례에 대해 스스로 분석하기 위한 학습방법은 창의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학습방법이다. 이에 최근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융합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스스로 자신의 열망, 동기, 자신감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34], 강의식 수업이 아닌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문제중심학습방법을 활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4].

따라서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사고력, 학교환경 인식정도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21.2%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추후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핵심역량 중 창의성은 다른 핵심역량을 개발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로 모든 간호대학생에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추후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K대학병원의 윤리심의 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D시에 일개 간호대학 20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정도는 5점 만점에 3.50(SD=0.60)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6점 만점에 3.95(SD=0.49), 사고력은 학교환경인식은 5점 만점에 각각 3.67(SD=0.53), 3.24(SD=0.48)점으로 나타났다.
- 간호대학생의 창의성과 자기효능감(r=.374, p<.001), 사고력(r=347, p<.001), 학교환경 인식(r=.246, p<.001)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간호대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자기효능감(β=0.249, p=.001), 사고력(β=0.152, p=.043), 학교환경인식(β=0.188, p=.0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창의력에 대한 설명력은 21.2%로 나타났다.

예비 의료인으로써의 간호대학생에게 창의성은 이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이다. 따라서 추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각 학년 별 단계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C. K., Cheung, E. Rudowicz, X. Yue, A. S. F. Kwan, “Crea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What is the Impact of Field and Year of Study”,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Vol. 37, No. 1, pp. 42-63, 2003.

[2] D. I. Kim, H. S. Oh, Y. S. Song, E. Y. Koh, S. M. Park, E. H. Jung, “Exploring Students′ Core Competencies in Higher Education from Professors′ Perspectives: A Case Stud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0, No. 2, pp. 195-214, 2009.

[3] Z. C. Chan, “A Systematic Review of Creative Thinking/Creativity in Nursing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Vol. 33, No. 11, pp. 1382-1387, 2013.

[4] H. S. Park, J. Y. Han,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Vol. 20, No. 4, pp. 438-448, 2013.

[5] M. A. Runco, “Creativity: Theories and Themes: Research, Development, and Practice”, Seoul: Sigma press, 2006.

[6] R. G. Kalischuk, K. Thorpe, “Thinking Creatively: From Nursing Education to Practic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Vol. 33, No. 4, pp. 155-163, 2002.

[7] Y. I. Han,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i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ployment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3, pp. 144-152, 2016.

[8] S. O. Kang, “Effects of Creative Nursing Practice on Hospital Nurs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 Korean Acad Nurs Admin, Vol. 18, No. 2, pp. 234-243, 2012.

[9] S. M. Han, “How Does the Environment Shape Creativity?”,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Vol. 5, No. 2, pp. 167-188, 2006.

[10] O. H. Kim, J. J. Sun, J. H. Kong, “The Relationship among Creativity, Personal Responsibility Orient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5, pp. 2809-2821, 2015.

[11] M. J. Choi, “The Effect of Creative Problem-solving Program on Creativity and Creative 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EN, Vol. 10, No. 2, pp. 165-173, 2016.

[12] H. H. Han, M. S. Lee, H. Y. Hong, “The Effect of Action Learning Teaching-Learning Method Applied to Nursing Students in U City”,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7(2), 17-30, 2016.

[13] Y. S. Song, The Effect of Neurofeedback Training on Developing Creativit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 13, No. 2, pp. 184-191, 2016.

[14] S. J. Han, The impact of TBL(team-based learning)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1, pp. 595-602, 2013.

[15] S. H. Yan, I. O. Sim,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reativity, Self Efficacy and Nursing Process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6, No. 5, pp. 612-622, 2016.

[16] S. M. Lee, H. H. Lee, Assessment of Creativity: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Inspection Tools, Hakjisa, 2015.

[17] M. Sherer, J. E. Maddux, “The self efficacy scale: Contraction and validation”, Psychol Rep, Vol. 51, No. 2, pp. 663-667. 1982.

[18] A. Y. Kim, J. E. Cha, “Measure of Self-efficacy”,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Proceedings of the Winter Conference, pp. 51-64, 1996.

[19] A. Y. Kim,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Its Correlat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1, No. 2, pp. 1-19, 1997.

[20] K. H. Lee, E. K. Kim, J. Y. Ko, C. S. Park, “Development of Learning Competence Test for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Cognition,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No. 4, pp. 791-809, 2011.

[21] H. S. Ki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Creative Home & School Environmental Measurem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ifted and Talented, Vol. 3, No. 2, pp. 69-84, 2004.

[22] S. Y. Kang,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to Creative Disposition and Ability in University Students Major in Health Care’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ol. 14, No. 3, pp. 49-66, 2009.

[23] H. W. Kwak, J. E. Yi,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147-155, 2016.

[24] K. H. Lee, E. K. Kim, K. H. Lew, “The Relationships of Creativ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Motivation in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for Creativity Education, Vol. 13, No. 1, pp. 125-139, 2013.

[25] S. Y. Kang, H. J. Kim, “Creative Ability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Problem Solving

Proc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3, pp. 1122-1128, 2012.

[26] R. S. Tannenbaum, "Education or Training: Reflections on a Life in Computing", Educom Review, Vol. 34, No. 1, pp. 10-14, 1999.

[27] E. H. Park, H. S. Kim, J. O. Kim, "The Effect of Convergence Action Learning Techniques in Simulation Cla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241-248, 2015.

[28] S. Y. Kang, "Relationships of Self-Efficacy to Creative Disposition and Ability in University Students Major in Health Care",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ol. 14, No. 3, pp. 49-66. 2009.

[29] B. G. Bak, H. S. Ka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form of Integrative Creativity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0, No. 1, pp. 155-177, 2006.

[30] M. J. Choi, The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Self-Efficacy, School Life Adjustment, and Creative Disposi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 thesis, 2006.

[31] E. I. Jung, "Effect of Problem Solving Discussion Activities on College Students' Creativity.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0, No. 2, pp. 27-49. 2009.

[32] K. H. Lee, "Effects of the CPS Programs using Scientific Tales on the Children's Creativ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17, No. 2, pp. 269-286. 2005.

[33] K. H. Lew, S. M. Kang, "The Differences of Creativity according to Level of Creative Environment i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Vol. 15, No. 3, pp. 169-184, 2015.

[34] W. H. Moon. Y. J. Kim,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Major Converged Short-term Study Abroad Program',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2, pp. 1-11, 2015.

[35] J. H. Kim, 'Mannequin Simulation in the Health Scienc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 21, No. 3, pp. 104-112, 2011.

저자소개

박 주 영(Ju-young Park) [정회원]

- 1998년 3월 :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 학사)
- 2006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관심분야> : 재난 및 응급간호, 간호교육

우 정 희(Chung Hee Woo) [정회원]

- 1987년 2월 :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 학사)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2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관심분야> : 정신건강, 지역사회, 연구방법론

김 두 리(Doo Ree Kim) [정회원]

- 2007년 3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관심분야> : 치매, 노인, 삶의 질, 극복력